



발행인 김선태 주교 | 주소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편집 천주교 전주교구 사무처 홍보실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홈페이지 <http://jcatholic.or.kr> | E-mail catholic114@hanmail.net

교구장 사목교서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전동성당(3지구)

사진 | 강주연 헬레나(가톨릭사진가회)



① 김성봉 신부(주임) ② 강석희 신부(보좌) ③ 한 올리에타 수녀(현), 정 소피아 수녀(오른)(인보성체수도회) ④ 김평기(사목회장) ⑤ 김영창(사무장) 외 사목회원

입당송 _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대영광송>

제1독서 _ 이사 6,1-2 7,3-8

화답송 _ 시편 138(137),1과 2 2,2 7,1과 3,4-5 7,8-8(◎ 1ㄷ)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_ 1코린 15,1-11

복음환호송 _ 마태 4,1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냥하는 어부로 만들리라.

◎ 알렐루야.

복음 _ 루카 5,1-11

영성체송 _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주보 <쇼정이>는 전주교구의 역사이고 소식이며 선교입니다. 성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느님의 말씀은 믿는 이들을 겸손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박성환 요셉 신부
(우림성당)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은 어떤 은총의 말씀을 주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서,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은총을 받는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삶을 사는 신앙인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그것은 우선, 첫째 독서인 이사야서에서 드러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님을 뵈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후 말합니다. “큰일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뵈다니!”(이사 6,5) 이사야는 하느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처지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이는 곧 스스로가 죄가 많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술이 더러운,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느님을 뵈게 되었으니, 자신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의 하나가 제단의 솥을 이사야의 입에 대고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이사 6,7)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사야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겸손한 태도를 지닌 이를 구원하시고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은 복음에서 “깊은 데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루카 5,4) 하신 말씀을 따르는 시몬 곧 베드로의 대답에서도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스승님”이라고 호칭합

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나이의 많고 적음보다는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며, 그분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감동하고 따르려는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들이 밤새 애쓰며 힘들고 지쳤으나 하지 못한 물고기 잡는 일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는 순종의 태도를 갖춥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기에 그는 물고기잡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견해와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루카 5,6)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겸손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두 번째 독서인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는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1코린 15,9-10) 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관한 감사와 겸손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1베드 5,5) 따라서 믿는 이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한 ‘나’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겸손한 믿음과 자세로 주님을 따르며, 기쁨으로 주님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에페소의 원로들 (사도 20,17-38)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로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것이다.”(사도 20,37-38)

에페소는 로마제국의 속주였던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자 거대한 상업도시로서 사치와 향락이 만연하고 그리스 신화 속 아르테미스 여신을 열성적으로 숭배하던, 복음을 선포하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비범한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페소에 머무릅니다.

3차 선교여행의 끝자락에서 바오로는 끝내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어쩌면 그렇게나 공들인 에페소에 들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러면 틀림없이 정들었던 신자들과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며칠을 허비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에페소를 지나쳐 밀레토스에 머물면서 에페소의 원로들을 부릅니다.

이 원로들은 바오로가 어떤 고생을 겪으며 복음을 선포해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며 그가 밤낮 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이들이었습니다.(사도 20,31 참조)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 바오로의 설교는 에페소 원로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자 사목적 당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사도 20,25)라는 바오로의 말에서 결연한 의지 뒤에 숨은 인간적인



성 바오로 대성당(내부) 프레스코화

아쉬움과 미련을 엿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사도 20,26)라는 말에서 바오로가 지닌 사도로서의 자부심을 읽습니다.



정현수도미니코사비오신부
(교구 청소년교육국)

흐느껴 울면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떠나는 바오로를 배 안까지 배웅하는 에페소 원로들의 모습은 인간사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기록한 성경에서도 손꼽히게 아름다운 이별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 교구 인사이동으로 여러 신부님들이 정든 삶의 자리를 떠났고 많은 신자들이 아쉬움 속에 신부님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때 되면 늘 있는 일이고 언젠가 다시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아마 신부님들도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공동체에서 겪는 헤어짐도 바오로와 에페소 원로들의 헤어짐을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오로가 그랬듯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떠나는 사제, 그리고 에페소의 원로들이 그랬듯 애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을 표현해 주는 신자들. 새로 만난 신부님들과 신자들을 포함해 우리 교구 모든 공동체가 언젠가 또 맞이하게 될 헤어짐의 순간이 아름답기를 바라며 주님의 보호와 은총을 청합니다.



팔복동성당 신축 기공식



팔복동성당(주임=성현상 신부)에서는 1월 26일(주일) 교중미사 후 신축 기공식을 거행했다. 기공식에는 교구장 김선태 주교와 교구 사제단, 본당 신자들이 함께했다.

김 주교는 “교우들이 더 쾌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전 신축에 대한 노력과 기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기공식을 할 수 있었다. 역대 본당 신부님께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며 그간 고생한 팔복동 공동체를 격려했다.

성 신부는, 2004년 8월 덕진성당과 여의동성당에서 분가하여 20년 만에 공동체의 염원인 성전을 신축하게 된 팔복동성당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후 교우들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미사 후 이어진 성전 신축 대지 축복 예식과 시삽식으로 신축공사의 첫걸음을 떼었다. 신축 성당은 대지면적 2,835㎡, 건축면적 405.44㎡, 총면적 763.36㎡로 지상 2층 2동 건물이며 대성전과 사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팔복동성당은 관할구역 팔복동 1,2,4가 전지역, 3가 일부지역 164세대 380명이다.

신자들은 신축기금 마련을 위해 본당 점심 나눔으로 짜장면과 봄에는 쭈개떡, 여름에는 잼을 만들어 교구 내 본당을 돌아가며 기도와 도움을 청하고 있다.

| 송병근(교구 기자단) |

후원 계좌 : 134-005-441844(신탁)
예금주 : (재)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쉬고 제주 여행
3.1~3 / 3.8~10 / 3.13~16(추자도포함) / 4.1~3
한라산 포함: 2.21~23 / 2.25~27
02-773-1455 / 064-796-4182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피나)
롯데백화점 옆
(063)255-8700

제주 연형의 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생태/성지순례
추자도 포함: 3.1~4 / 3.9~12 / 4.12~15
생태순례: 3.17~19 / 3.22~24 / 3.28~30
02-773-1463 / 064-756-6009

문실버요양병원(구, 문병원)

가톨릭 신자 내원 시 우대 혜택
원장 : 문지식 레나도, 기순중 안젤라
위치 : 경원동 KT 사옥 옆
063)282-8833~6/284-2918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4/22 다낭 5일, 4/28 홍콩마카오 4일
4/1, 4/15, 5/15, 5/25 제주도 성지순례(추자도)
4/8 대전 4일, 5/12 춘천원주 4일, 6/3 수원 3일
정성훈 미카엘 010-8650-9690 michaeltour.co.kr

전주항외과(구, 항병원)

치질·하지정맥류·탈장
위대장내시경·국가건강검진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카), 이관재, 황정환
228-6002 삼천동 세창짜임APT 맞은편

전일관광 메주고리에 성지순례

아테네·메테오라·알바니아·메주고리에·보스니아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
2025년 4월 27일~5월 10일(매일 미사 있습니다)
전일관광 조선 안토니오 063-288-6666

장 문 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암 검진기관
위.대장항문병 중점, 위.대장 내시경 센터
내과: 나용호 / 외과: 최성양(루카)
834-6000 익산 영동동 육교 옆

온누리 바른척추&통증관리

목·어깨·팔·허리·다리
척추 골반 통증 및 체형 관리
최민준 시몬 010-3684-5544
효자동 신기독병원 맞은편

전주 미르치과병원

진료문의 063)224-7700
이선하 크리스티나 정희웅 프란치스코
허선 세라피나 정자실 소화테레사 김동욱 요셉
중화산동 은하아파트 사거리 (백제대로218)

남문애몰·남문문구센터

전주시 보건소 옆
문화누리카드/각종 지원금 가능
문구·완구 외 5만가지 상품물
063)283-9100 원수관 야고보·심경이 마리아

서울영상의학과 MRI센터·심장센터

최신 AI장착 3.0T 지멘스 MRI 도입
심장초음파CT, 특수촬영
박인숙 아나다시아, 설명진(영상의학과)
김원호 베드로(심장내과) 063)278-1313

2025년도 생명 아카데미 안내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알려 온 ‘생명 아카데미’가 오는 2월 22일(토), 2025년 일정을 시작한다.

교구 가정사목국(국장=이원재 신부)은 자살, 우울증, 존엄사, 낙태, 장기기증, 인공수정, 뇌사 등과 같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명 이슈들을 신앙의 프리즘을 통해 교구장 사목교서 ‘생명에 봉사하는 가정’에 대한 응답으로 새롭게 기획하였다.

더 많은 신자들이 생명의 가치와 교회가 이야기하는 생명 윤리에 대해 잘 알고 동참하기를 바라며 교구청에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번의 강의로 밀도 있게 편성하였다.

내용면에서도 종래와 같은 실천적인 주제에 더해 신학적으로 생명윤리 차원의 심도 있는 강의들을 편성하였다.

- ▶ 2월 22일(토) 송봉모 신부(예수회)
‘생명을 돌보는 인간’을 중심으로 생명 개념,
생명 돌보기 훈련방법
- ▶ 3월 15일(토) 성염 교수(주 바티칸 대한민국 전 대사)
교부들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가치
- ▶ 4월 26일(토) 신정숙 수녀(인보성체수도회)
몸 신학을 중심으로 자신이 받은 생명 소중함 깨닫기
- ▶ 6월 28일(토) 박은호 신부(서울대교구)
현대 사회에 드리워진 죽음의 문화
- ▶ 9월 13일(토) 오석준 신부(서울대교구)
생의 말기와 연명 치료



- ▶ 10월 25일(토) 손영순 수녀(마리아의작은자매회)
호스피스 차원에서 죽음에 다다른 가족의 생명
돌봄과 그 의미
- ▶ 11월 15일(토) 김기곤 신부(나운동성당 주임)
사별가족의 삶, 생명 돌봄과 그 의미

- 생명 아카데미 신청 : 본당 사무실
문의 : 063)285-1031 교구 가정사목국

| 취재 : 현화진(교구 기자단), 사진 : 교구 가정사목국 제공 |



Photo 소식



▲ 2025 통합로사리오회 신년 미사
2월 1일(토) 교구청 <사진 : 통합 로사리오회 제공>

양빛나 유외과

유방 감상선 전문의 · 여성 전문의
원장 양빛나(리나), 이주환(요한)
효자동 홈플러스 맞은편 하나은행 4층
063)228-9336

아름다운 김현숙안과

쌍꺼풀수술·상안검성형술·하안검성형술
성형안과 정희원
원장 김현숙 레지나
신기가지 국민은행 5층 063)225-7717

성 바오로 복지 병원

양·한방 협진, 수술 후 회복기, 암 환자
만성질환, 기타 요양이 필요한 질환(면회 가능)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063)249-3300~3302

• **해성학원 이사회**

2월 11일(화) 오후 2시 30분 교구청

• **사제평의회**

2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 **마산교구장 착좌미사**

2월 12일(수) 오후 2시 창원

• **신학생 개학 인사**

2월 13일(목) 오전 11시 유항검관

• **은총의 성마리아학교 피정**

2월 14일(금)~16일(주일)

• **화산동성당 사무장 채용 공고**

자격 :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운전면허 1종,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서류 : 이력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자기 소개서, 교적 증명서
마감 : 2월 28일(금)
문의 : 063)221-9842(사무실)
010-9655-4477(사목회장)

이번 주 교구 행사

• **2월 10일(월)**

- 군중후원회 월레미사(오전 11시 교구청)
- 가정성화미사
(오전 11시 자비의 성전)
- 5지구 사랑의다리 후원회 미사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2월 11일(화)**

- 사무장.원 춘계연수
(~12일, 평화의 전당)
- 도청 로사리오회 미사
(오후 6시 40분 전북도청)

• **2월 13일(목)**

-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레미사
(오후 2시 유항검관)

• **2월 14일(금)**

- 54차 신입교리교사학교
(~16일, 천호성지 피정의 집)
- 12차 약혼자 주말
(~16일, 평화의 전당)

• **2월 15일(토)**

- 순교자현양미사 및 순교현양 아카데미
(오후 2시 교구청)

교구 내 알릴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레미사**

2월 11일(화) 오후 2시
미사 후 성시간(누구나 참석 가능)
장소 : 교구청 4층 강당

• **전주 재속 예수성심전교회 회원 모집**

대상 : 예수성심의 사랑과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평신도
모임 : 둘째 주일 오후 2시 평화의전당
문의 : 010-2312-2396 최 이사야 수녀

• **마리아사제운동 다락방기도 미사**

2월 15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 유항검관 4층 대강당
문의 : 010-9853-9080

• **전주교구 순교자현양 도보순례**

-3월 8일(토) 08:00~17:00
요안루갈다길(신청 마감 : 2월 21일)
-4월 12일(토) 12:00~18:00
전주순례길(신청 마감 : 3월 28일)
-5월 10일(토) 07:30~17:30
첫 순교자길 1구간(신청 마감 : 4월 25일)

• **전주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이메일 : jjcatholic@hanmail.net

교구 밖 알릴

• **예수회센터 봄학기 비대면강좌 3월 개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좌
-영성과 철학상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화요일·목요일·금요일 19:30~22:00
-금요일은 20~30대 청년대상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 **천주의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2월 15일(토) 오후 2시
장소 :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 010-3800-1579

•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 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 숙소 이용 가능
요나성당 인근 성지-서짓골 성지
갈매곶순교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 041-934-7758
<https://yonaresort.modoo.at/>

제11기

**신앙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실시 안내**

교육기간 : 3월 22일(토)~23일(주일) / **예비소집** : 3월 15일(토) 오후 1시 30분 교구청 4층

교육장소 : 천호성지 피정의 집 / **지원기간** : 2월 9일(주일)~28일(금)

교육비 : 145,000원(연회비, 교육비, 교재비, 연수비 포함) 지원서 제출시 납부

*교육비 입금통장 : 농협 301-0186-6459-81(전주교유지재단)

지원서 접수 방법

- 문의 및 전화 접수 : 010-9365-0601(김준수)
- 전화 접수 후, 예비소집일에 지원서 제출 가능
- 지원 참조 : <http://cafe.daum.net/jeonjudioc.guide>

전주교구 신앙문화유산해설사회

전주가톨릭신학원

1. 모집 안내

- 가톨릭교회교리서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
 - 추가접수 : 2025.2.21(금)까지
 - 개강일 2025.2.26(수) 전주 본원 19:00

- 성서연수와 : *개강일까지 모집합니다.
 - 개강일 2025.2.27 (목) 익산(부송동) 10:00
 - 전주(주간) 10:00 (야간) 19:00

- 화요 특강 (4/29~6/24) 10:00~12:00
 - 주제 : "성경이 가르쳐준 새로운 관점들"
 - 강사 : Fr.박문수(화산동 성당 주임)
 - 모집기간 : 2025.3.17(월)~4.25(금)

2. 2025년도 1학기 개강 안내

- 입학미사 : 2025.2.22(토) 14:00 천주교전주교구청 유허검관 4층 대강당
- 각 학과 개강 안내

구 분	학 과	학년/지역	개강일자	시 간
교리부	교리교육과	1학년	2/24(월)	10:00-16:00
		2학년	2/26(수)	10:00-16:00
	신앙연수와	1학년	2/24(월)	19:00-21:30
		2학년	2/26(수)	19:00-21:30
성서부	성서교육과	1학년	2/28(금)	10:00-16:00
		2학년	2/25(화)	10:00-16:00
	성서연수와	전주	2/27(목)	10:00-12:30 19:00-21:30
		익산	2/27(목)	10:00-12:30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천주교전주교구청 유허검관 3층 행정실
문의전화 : 063)230-1194 / 010-9874-1540